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 II : 학과만족도 및 진로 확신을 중심으로

이주현*, 김한솔**, 박혜연**, 조덕연**, 김진수***, 박수현****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 I : 일반적 현황 및 전공 선택의 연구 틀과 절차가 동일하다.

결과 : 학과만족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7~22세 범위의 연령대의 학생들이 26~28세 범위의 연령대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이 복학생, 편입생보다 학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확신에 속하는 진로불안감과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학생이 연령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으며, 진로불안감은 낮았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이 3년제 대학보다 진로불안감과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으며, 국시 불안감이 클수록 진로불안감은 더 높았다.

결론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작업치료(학)과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관심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치료(학)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 대학생, 작업치료(학)과, 진로성숙도, 진로불안감, 학과만족도

I. 서 론

최근 만성 성인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 인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작업치료(학)과가 신설된 대학교가 2000년 9개에서 현재 51개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작업치료사도 2000년

20명에서 현재 99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 인력의 진출분야 및 실무영역이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며, 인력 수요가 제한적인 현실로 인해 작업치료사의 과잉 공급은 경쟁을 야기시키며, 이는 앞으로 취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자, 2002). 오늘날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려하지 않은 채 입학하므로 진로 및 취업 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며, 졸업 후 취업이 잘 되

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조민제, 2010). 이러한 불안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과 같은 감정으로 진로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욕구좌절 및 갈등에서 발생하는 막연한 예감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김민정, 2007). 또한 진로불안감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취업난 등과 함께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대학생 기간 동안 삶의 질과 그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노연경, 2011).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의 학과 만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송윤신 등, 2003). 학과만족은 학생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김계현과 하혜숙, 2000). 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준비도의 개념인 진로성숙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졸업 후의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정희영과 박옥련, 2009). 그러므로 21세기 대학은 대학행정이 중심체제나 교수 중심체제가 아닌 학생고객 시대에 걸맞은 체제인 고객중심 대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정비와 개혁이 필요하며,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정원미와 이재신, 2001).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신설된 작업치료(학)과는 교수요원의 확보나 실습시설 및 교과과정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작업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향후 작업치료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자, 2002). 따라서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준비 및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하여 학생들이 현재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그리고 진로성숙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향후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에 반영하여 올바른 가치관 및 더 좋은 교육경험을 쌓게 하여 최적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양경희, 1999), 나아가 작업치료(학)과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만족도와 진로불안감 그리고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다.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김진경 등, 2004; 이향숙, 2010) 등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에 대해 알아보고 학과만족도와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작업치료(학)과의 경쟁력을 높여 작업치료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설문 조사는 전국의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 10개 학교, 3년제 대학 9개 학교 총 4,500명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현황 및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 I: 일반적 현황 및 전공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관심 영역에서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불안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두 연구의 대상자는 동일하였다(표 1).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 I: 일반적 현황 및 전공 선택의 연구 틀과 절차가 동일하다. 전국 19개의 학교에 4,5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3,666부(81.4%)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1,329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학 제	3년제		605	45.6
	4년제		724	54.4
응답자 대학 소재지	경상남도	3개 학교	302	22.6
	강원도	3개 학교	238	17.9
	전라남도	4개 학교	179	13.5
	경상북도	3개 학교	133	10.0
	대구광역시	1개 학교	89	6.7
	충청남도	1개 학교	79	5.9
	전라북도	1개 학교	75	5.6
	경기도	1개 학교	74	5.6
	광주광역시	1개 학교	62	4.7
	충청북도	1개 학교	59	4.4
	제주도	1개 학교	39	2.9
학 년	1학년		483	36.3
	2학년		457	34.4
	3학년		335	25.2
	4학년		54	4.1
학생군	재학생		1139	85.7
	복학생		133	10.0
	편입생		28	2.1
	재입학		27	2.0
	기타		2	0.2
성 별	여		977	73.5
	남		352	26.5
연 령	만 18세 미만		253	19.7
	만 18세이상 ~ 만 22세 미만		797	59.9
	만 22세 이상		279	20.4
학과선택 계기	추천		675	50.8
	스스로 선택		654	49.2
추천지인	부모님		203	30.0
	형제, 자매		59	8.8
	학교 선생님		164	24.3
	학교 선배		26	3.9
	친구		103	15.3
	기타		120	17.7
다른과 진학희망	했었음		831	62.5
	하지 않음		498	37.5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입학 시 진학확신	매우높다	181	13.6
	높다	512	38.5
	보통이다	504	37.9
	낮다	97	7.3
	매우낮다	20	1.5
	생각해본적없다	15	1.1
현재 진학확신	매우높다	181	13.6
	높다	512	38.5
	보통이다	97	7.3
	낮다	20	1.5
	매우낮다	15	1.1
학과 활동경험	있다	495	37.2
	없다	834	62.8
소속변경 생각	했음	588	44.2
	한적 없음	741	55.8

3. 연구도구

1) 학과 만족도

본 문항은 Illinois 대학의 전공학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하였으며, 대학생의 전공학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항목을, 나동진과 송재홍(1985)이 변안한 것이다.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과 이영식(1986)이 전공만족 검사가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의미 있게 분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혜숙(2000)은 본 문항들에 대해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요인과, 학교만족요인,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조사 항목을 첨가하여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과 만족도 점수가 커질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설문문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2$ 이다. 본 설문을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작업치료(학)과와 관련 없는 문항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라는 단어를 작업치료(학)과로 작업치료(학)과 실정에 맞

추어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진로 확산

(1) 진로 성숙도

진로성숙도 문항은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CAMI)를 사용하였으며, CAMI척도는 총 47문항으로 5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항목은 결정성(10문항), 목적성(8문항), 확산성(10문항), 준비성(10문항), 독립성(9문항)으로 되어있다. 26개의 역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에 대해 아주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들이 중간치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태도와 하위 항목에 대해 높은 성숙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MI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Cronbach $\alpha=.867$ 이며, 하위요인 별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결정성 $\alpha=.79$, 목적성 $\alpha=.79$, 확산성 $\alpha=.70$, 준비성 $\alpha=.80$, 독립성 $\alpha=.82$ 이

다. 본 설문에서는 CAMI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총 4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진로불안

진로불안 설문지는 박종원(2002)의 연구에서 제작, 사용된 진로 미결정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진로 미결정 설문지는 자기 명확성 부족 7문항, 진로관련정보 부족 10문항, 결단성 부족 9문항, 내적갈등 9문항, 외적 장애 16문항, 결정의 필요성 부족 9문항으로 총 60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1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이다. 본 항목들을 토대로 Y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학년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학)과를 진학 후 개인적으로 느꼈던 진로불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필요 없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어떤 분야에서'를 작업치료 분야로 수정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과만족도 및 진로확신에 대해서는 t -test 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학과 만족도

(1)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 따른 학과만족도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에서는 성별($t=-4.855$, $p<.01$), 연령($F=5.883$, $p<.01$), 학제

($t=4.826$, $p<.01$), 응답자 대학 소재지($F=6.190$, $p<.01$), 학생군($F=11.897$, $p<.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에서는 여학생(52.35 ± 10.48)이 남학생(49.17 ± 10.74)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17~19세 범위(52.23 ± 10.09)의 연령대의 학생들일 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22세(51.68 ± 10.69), 23~25세(49.79 ± 11.09), 29세 이상(45.43 ± 14.81), 26~28세(45.00 ± 12.05) 순이었다. 연령범위에 따른 학과만족도에 대해 사후 검증 결과 26~28세 연령범위는 17~19세 연령대와 20~22세 연령대와 학과 만족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학제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3년제(53.03 ± 10.360)가 4년제(50.23 ± 10.70)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학 소재지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경상북도(56.00 ± 9.67), 제주도(54.20 ± 12.47), 충청북도(53.13 ± 11.16), 대구광역시(52.60 ± 9.30), 경상남도(51.96 ± 9.65), 강원도(50.89 ± 11.23), 경기도(50.81 ± 12.17), 충청남도(50.81 ± 10.58), 전라남도(50.31 ± 9.42), 전라북도(48.81 ± 10.72), 광주광역시(45.09 ± 10.6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경북은 강원, 전북, 광주지역과 학과만족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광주는 경남과 대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학생 군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재학생(52.23 ± 10.38)의 학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복학생(48.06 ± 10.26), 재입학(48.03 ± 15.50), 편입생(43.32 ± 8.96), 기타(31.00 ± 5.6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군 내에서도 재학생은 복학생, 편입생보다 학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에 따른 학과 만족도와 학과선택제기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2)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학과만족도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학과 활동경험)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학과만족도에서는 학과활동 경험($t=-4.132$, $p<.01$), 입학 시 진학확신($F=21.269$, $p<.01$), 현재 진학확신($F=69.068$, $p<.01$), 소속변경생각($t=11.491$, $p<.01$), 다른 과 진학($t=6.80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학과 활동 경험에 따

표 2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따른 학과만족도

(N=1329)

구분		효과만족도 ($M \pm SD$)	F/t	p	사후검증
성별	남	49.17 $\pm$ 10.74	-4.855	.000**	
	여	52.35 $\pm$ 10.48			
연령(만)	17~19세	52.23 $\pm$ 10.09	5.883	.000**	26~28세<17~19세** 26~28세<20~22세**
	20~22세	51.68 $\pm$ 10.69			
	23~25세	49.79 $\pm$ 11.09			
	26~28세	45.00 $\pm$ 12.05			
	29세 이상	45.43 $\pm$ 14.81			
학제	3년제	53.03 $\pm$ 10.36	4.826	.000**	
	4년제	50.23 $\pm$ 10.70			
응답자 대학 소재지	강원도	50.89 $\pm$ 11.23	6.190	.000**	강원<경북** 광주<경북** 전북<경북** 광주<경남**
	경기도	50.81 $\pm$ 12.17			
	경상남도	51.96 $\pm$ 9.65			
	경상북도	56.00 $\pm$ 9.67			
	광주광역시	45.09 $\pm$ 10.67			
	대구광역시	52.60 $\pm$ 9.30			
	전라남도	50.31 $\pm$ 9.42			
	전라북도	48.81 $\pm$ 10.72			
	제주도	54.20 $\pm$ 12.47			
	충청남도	50.81 $\pm$ 10.58			
	충청북도	53.13 $\pm$ 11.16			
학년	1	51.45 $\pm$ 10.32	.052	.984	
	2	51.54 $\pm$ 10.56			
	3	51.62 $\pm$ 11.16			
	4	51.05 $\pm$ 11.05			
학생군	재학생	52.23 $\pm$ 10.38	11.897	.000**	복학생<재학생** 편입생<재학생**
	복학생	48.06 $\pm$ 10.26			
	편입생	43.32 $\pm$ 8.96			
	재입학	48.03 $\pm$ 15.50			
	기타	31.00 $\pm$ 5.65			
학과선택 계기	추천	51.97 $\pm$ 10.84	1.629	.104*	
	스스로	51.02 $\pm$ 10.40			

*p<.01

른 학과만족도는 학과활동경험이 없는(52.43 $\pm$ 10.58) 경우가 경험이 있는(49.95 $\pm$ 10.56) 경우 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시 진학확신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매우 낮다(58.30 $\pm$ 12.62), 생각해 본적 없다(57.53 $\pm$ 10.96), 낮다(56.86 $\pm$ 10.17), 보통이다(53.34 $\pm$ 9.48), 높다(49.89 $\pm$ 9.75), 매우 높다(46.86 $\pm$ 13.04) 순으로 나

타났다. 현재 진학 확신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경우에도 매우 낮다(62.34 ± 11.23), 생각해 본적 없다(57.08 ± 13.18), 낮다(56.16 ± 9.73), 보통이다(51.60 ± 8.93), 높다(46.40 ± 8.74), 매우 높다(41.29 ± 12.45) 순이었다. 입학 시 진학확신과 현재 진학확신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 대하여 사후 검증 결과 모든 응답 항목들의 학과만족도의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작업치료(학)과에 진학이후 소속변경(전과나 편입) 생각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소속변경 생각을 했음(55.10 ± 10.77) 이 한적 없음(48.66 ± 9.62)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치료(학)과를 진학하기 전 다른 과 진학에 대해 생각 했었는지에 대한 학과 만족도는 생각을 했었다(53.02 ± 10.51)의 경우가 생각하지 않았다(48.98 ± 10.37)보다 학과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표 3).

2.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진로 확신

(1)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따른 진로 성숙도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따른 진로성숙에서는 성별($t=3.083$, $p < .01$), 연령($F=11.98$, $p < .01$), 학제($t=-3.748$, $p < .01$), 응답자 대학 소재지($F=4.643$, $p < .01$), 학년($F=2.784$, $p < .05$), 학생군($F=7.665$, $p < .01$), 학과 선택시기($t=-4.457$, $p < .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성별에서는 남자(131.02 ± 14.35)가 여자(123.64 ± 11.87)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 성숙도는 26~28세(141.48 ± 16.97), 29세 이상(138.68 ± 17.40), 23~25세(130.50 ± 14.10), 20~22세(129.52 ± 12.72), 17~19세(127.90 ± 11.2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범위에

표 3.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학과만족도

(N=1329)

구분		효과만족도 (M ± SD)	F/t	p	사후검증
학과 활동 경험	있다	49.95 ± 10.56	-4.132	.000**	
	없다	52.43 ± 10.58			
입학 시 진학확신	매우 높다	46.86 ± 13.04	21.269	.000**	생각해본 적 없다<매우 낮다**
	높다	49.89 ± 9.75			낮다< 매우 낮다**
	보통이다	53.34 ± 9.48			보통이나< 매우 낮다**
	낮다	56.86 ± 10.17			높다< 매우 낮다**
	매우 낮다	58.30 ± 12.62			매우 높다< 매우 낮다**
	생각해본 적 없다	57.53 ± 10.96			
현재 진학확신	매우 높다	41.29 ± 12.45	69.068	.000**	생각해본 적 없다<매우 낮다**
	높다	46.40 ± 8.74			낮다< 매우 낮다**
	보통이다	51.60 ± 8.93			보통이나< 매우 낮다**
	낮다	56.16 ± 9.73			높다< 매우 낮다**
	매우 낮다	62.34 ± 11.23			매우 높다< 매우 낮다**
	생각해본 적 없다	57.08 ± 13.18			
소속변경 생각	했음	55.10 ± 10.77	11.491	.000**	
	한적 없음	48.66 ± 9.62			
다른과 진학	했었음	53.02 ± 10.51	6.807	.000**	
	하지 않음	48.98 ± 10.37			

** $p < .01$

따른 사후검증 결과, 26~28세는 17~19세와 20~22세, 23~25세 연령 범위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9세 이상은 17~19세 연령범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1$). 학제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4년제 (130.46 ± 12.60)의 경우 3년제(127.87 ± 12.50)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학 소재지에 따른

표 4.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 따른 진로성숙도

($N=1329$)

구분		효과만족도 ($M \pm SD$)	F/t	p	사후검증
성별	남	131.02 ± 14.35	3.083	.002**	
	여	123.64 ± 11.87			
연령 (만)	17~19세	127.90 ± 11.26	11.9	8.000**	17~19세<26~28세**
	20~22세	129.52 ± 12.72			20~22세<26~28세**
	23~25세	130.50 ± 14.10			23~25세<26~28세**
	26~28세	141.48 ± 16.97			17~19세<29세 이상**
	29세 이상	138.68 ± 17.40			
학제	3년제	127.87 ± 12.50	-3.748	.000**	
	4년제	130.46 ± 12.60			
응답자 대학 소재지	강원도	131.16 ± 11.52	4.643	.000**	대구광역시<강원도** 대구광역시<전라남도**
	경기도	128.29 ± 13.65			
	경상남도	129.37 ± 12.87			
	경상북도	126.14 ± 11.25			
	광주광역시	132.06 ± 12.22			
	대구광역시	123.42 ± 11.76			
	전라남도	132.47 ± 13.17			
	전라북도	129.85 ± 12.56			
	제주도	126.71 ± 11.64			
	충청남도	129.40 ± 13.05			
	충청북도	130.28 ± 13.43			
학년	1	128.44 ± 12.06	2.784	.040*	
	2	129.28 ± 12.10			
	3	129.84 ± 13.73			
	4	133.31 ± 13.94			
학생 군	재학생	128.59 ± 12.13	7.665	.000**	복학생<재학생** 재학생<기타**
	복학생	133.16 ± 14.64			
	편입생	132.89 ± 11.92			
	재입학	133.37 ± 16.06			
	기타	156 ± 12.72			
학과선택 계기	추천	127.77 ± 12.31	-4.457	.000**	
	스스로	130.83 ± 12.75			

** $p<.05$, ** $p<.01$

진로 성숙도는 전라남도(132.47 ± 13.17), 광주광역시(132.06 ± 12.22), 강원도(131.16 ± 11.52), 충청북도(130.28 ± 13.43), 전라북도(129.85 ± 12.56), 충청남도(129.40 ± 13.05), 경기도(128.29 ± 13.65), 경상남도(129.37 ± 12.87), 제주도(126.71 ± 11.64), 경상북도(126.14 ± 11.25), 대구광역시(123.42 ± 11.76)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대구는 강원과 전라남도의 진로성숙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학년군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4학년(133.31 ± 13.94), 3학년(129.84 ± 13.73), 2학년(129.28 ± 12.10), 1학년(128.44 ± 12.0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군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기타 학생군(156 ± 12.72)이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냈으며, 재입학(133.37 ± 16.06), 복학생(133.16 ± 14.64), 편입생(132.89 ± 11.92), 재학생($132.89 \pm$

11.92)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복학생과 기타 학생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학과 선택시기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학과진학에 대해 스스로 선택(130.83 ± 12.75)을 한 경우 추천으로(127.77 ± 12.31) 학과를 선택한 경우 보다 진로성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표 4).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학과 활동경험)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진로성숙도에서는 학과활동 경험($t = 4.965$, $p < .01$), 입학 시 진학확신($F = 11.199$, $p < .01$), 현재 진학확신($F = 25.818$, $p < .01$), 소속변경생각($t = -5.406$, $p < .01$), 다른과 진학($t = -3.294$,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학과 활동 경험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학과활동 경험에 있는(131.49 ± 13.08) 경우가 없는 경우(127.96 ± 12.15)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게

표 5.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진로성숙도

(N=1329)

구분		진로성숙도 (M ± SD)	F/t	p	사후검증
학과 활동 경험	있다	131.49 ± 13.08	4.965	.000**	
	없다	127.96 ± 12.15			
입학 시 진학확신	매우 높다	132.66 ± 15.64	11.199	.000**	
	높다	131.04 ± 12.03			보통이다<매우 높다**
	보통이다	127.61 ± 11.75			낮다<매우 높다**
	낮다	124.20 ± 9.57			보통이다<높다**
	매우 낮다	123.05 ± 14.93			낮다<높다**
	생각해본 적 없다	125.26 ± 12.73			
현재 진학확신	매우 높다	137.21 ± 19.01	25.818	.000**	보통이다< 매우 높다**
	높다	133.34 ± 12.93			낮다< 매우 높다**
	보통이다	129.08 ± 11.13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낮다	125.71 ± 10.85			보통이다 <높다**
	매우 낮다	120.78 ± 11.01			낮다 <높다**
	생각해본 적 없다	128.41 ± 11.20			매우 낮다<높다** 낮다<보통이다** 매우 낮다<보통이다**
소속변경 생각	했음	127.20 ± 12.34	-5.406	.000**	
	한적 없음	130.93 ± 12.59			
다른과 진학	했었음	128.40 ± 12.00	-3.294	.001**	
	하지 않음	130.74 ± 13.46			

**p<.01

나타났으며, 입학 시 진학확신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매우 높다(132.66 ± 15.64), 높다(131.04 ± 12.03), 보통이다(127.61 ± 11.75), 생각해본 적 없다(125.26 ± 12.73), 낮다(124.20 ± 9.57), 매우 낮다(123.05 ± 14.93) 순이었다. 현재 진학확신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매우 높다(137.21 ± 19.01), 높다(133.34 ± 12.93), 보통이다(129.08 ± 11.13), 생각해본 적 없다(128.41 ± 11.20), 낮다(125.71

± 10.85), 매우 낮다(120.78 ± 11.01)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 시 진학확신과 현재 진학확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입학 시 진학확신에서는 매우 높다 항목이 보통이다, 낮다와 차이가 나타났으며, 높다 항목은 보통이다, 낮다 항목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현재 진학확신의 경우 매우 높다 항목이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항목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높

표 6.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따른 진로불안

(N=1329)

구분		진로불안 (M ± SD)	F/t	p	사후검증
연령(만)	17~19세	38.76 ± 5.48	3.864	.004**	20~22세<17세~19세** 23~25세<17세~19세**
	20~22세	37.64 ± 5.89			
	23~25세	37.46 ± 5.92			
	26~28세	39.25 ± 7.62			
	29세 이상	39.93 ± 5.56			
학제	3년제	37.65 ± 5.41	-3.100	.002**	
	4년제	38.64 ± 6.03			
응답자 대학 소재지	강원도	37.89 ± 6.19	2.514	.005**	
	경기도	37.33 ± 5.90			
	경상남도	38.07 ± 5.36			
	경상북도	37.69 ± 5.48			
	광주광역시	40.22 ± 5.76			
	대구광역시	37.69 ± 4.92			
	전라남도	39.37 ± 5.90			
	전라북도	38.72 ± 6.12			
	제주도	35.76 ± 4.46			
	충청남도	38.70 ± 5.97			
학년	1	39.29 ± 5.69	9.697	.000**	2학년<1학년** 3학년<1학년**
	2	37.71 ± 5.47			
	3	37.31 ± 5.98			
	4	37.94 ± 6.41			
학생군	재학생	38.09 ± 5.73	.799	.526	
	복학생	38.58 ± 5.86			
	편입생	39.25 ± 6.50			
	재입학	38.96 ± 6.73			
	기타	42.00 ± 1.41			

**p<.01

다 항목은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항목과 차이가 있었다. 보통이다 항목은 낮다, 매우 낮다 항목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소속변경 생각에 따른 진로 성숙도는 소속변경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130.93 ± 12.59)가 생각을 한 경우 보다(127.20 ± 12.34)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과 진학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130.74 ± 13.46)가 생각을 해본 경우(128.40 ± 12.00)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5).

(3)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따른 진로 불안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성별,연령)에 따른 진로불안 감은 작업치료(학)과 학생 특성 중 성별($t=3.456, p<.01$), 연령($F=3.864, p<.01$), 학제($t=-3.100, p<.01$), 응답자 대학 소재지($F=2.514, p<.01$), 학년($F=9.69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불안에서는 남학생(39.10 ± 5.78)이 여학생(37.86 ± 5.74)보다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 불안은 29세 이상(39.93 ± 5.56), 26~28세($39.25\pm$

표 7.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진로불안

(N=1329)

구분		진로불안 (M ± SD)	F/t	p	사후검증
학과 활동경험	있다	38.52 ± 6.10	1.602	.109	
	없다	38.00 ± 5.58			
입학 시 진학확신	매우 높다	36.33 ± 6.19	16.196	.000**	낮다<생각해본 적 없다** 보통<생각해본 적 없다** 높다<생각해본 적 없다**
	높다	32.95 ± 5.33			
	보통이다	35.05 ± 5.46			
	낮다	37.70 ± 4.85			
	매우 낮다	38.90 ± 5.64			
	생각해본 적 없다	40.05 ± 7.35			
현재 진학확신	매우 높다	37.66 ± 5.97	70.849	.000**	낮다<생각해본 적 없다** 보통<생각해본 적 없다** 높다<생각해본 적 없다** 매우 높다<생각해본 적 없다**
	높다	31.98 ± 4.46			
	보통이다	35.26 ± 4.60			
	낮다	38.42 ± 4.71			
	매우 낮다	40.95 ± 5.67			
	생각해본 적 없다	42.98 ± 7.90			
소속변경 생각	했음	36.52 ± 5.53	-9.692	.000**	
	한적 없음	39.51 ± 5.63			
다른과 진학	했었음	37.46 ± 5.48	-6.002	.000**	
	하지 않음	39.40 ± 6.05			
국시불안	매우 높다	38.45 ± 5.95	17.243	.000**	매우 높다<낮다** 낮다<높다**
	높다	40.58 ± 7.28			
	보통이다	40.56 ± 6.31			
	낮다	38.93 ± 5.39			
	매우 낮다	38.05 ± 5.60			
	생각해본 적 없다	35.44 ± 5.24			

** $p<.01$

7.62), 17~19세 (38.76 ± 5.48), 20~22세 (37.64 ± 5.89), 23~25세 (37.46 ± 5.92) 순으로 나타났다. 학제에 따른 진로불안에서는 4년제 (38.64 ± 6.03)가 3년제 (37.65 ± 5.41)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불안은 광주광역시 (40.22 ± 5.76), 전라남도 (39.37 ± 5.90), 전라북도 (38.72 ± 6.12), 충청남도 (38.70 ± 5.97), 충청북도 (38.37 ± 6.64), 경상남도 (38.07 ± 5.36), 강원도 (37.89 ± 6.19), 경상북도 (37.69 ± 5.48), 대구광역시 (37.69 ± 4.92), 경기도 (37.33 ± 5.90), 제주도 (35.76 ± 4.4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 불안은 4학년 (37.94 ± 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 (39.29 ± 5.69), 2학년 (37.71 ± 5.47), 3학년 (37.31 ± 5.98) 순이었다. 학년과 연령범위에 따른 진로불안에 대해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연령에 따른 진로불안에서는 17~19세가 20~22세, 23~25세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진로불안에서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p < .01$). 학생 군에 따른 진로 불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4)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진로불안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 생활(학과 활동경험) 및 진학관련 요소에 따른 진로불안감에서는 입학 시 진학확신 ($F=16.196$, $p < .01$), 현재 진학확신 ($F=70.849$, $p < .01$), 소속변경 생각 ($t=-9.692$, $p < .01$), 다른과 진학 ($t=-6.002$, $p < .01$), 국시불안 ($F=17.243$,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학 시 진학확신에 따른 진로불안에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40.05 ± 7.35)의 경우 진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다(38.90 ± 5.64), 낮

다(37.70 ± 4.85), 매우 높다(36.33 ± 6.19), 보통이다(35.05 ± 5.46), 높다(32.95 ± 5.33) 순이었다. 현재 진학확신에 따른 진로불안감은 생각해 본적 없다(42.98 ± 7.90), 매우 낮다(40.95 ± 5.67), 낮다(38.42 ± 4.71), 매우 높다(37.66 ± 5.97), 보통이다(35.26 ± 4.60), 높다(31.98 ± 4.46) 순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입학 시 진학확신의 경우에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항목이 낮다, 보통, 높다 항목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현재 진학확신에 따른 진로불안 정도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항목이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항목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진로불안은 소속변경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은(39.51 ± 5.63) 학생일수록 생각을 해본(36.52 ± 5.53) 학생들 보다 진로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시 다른 과 진학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39.40 ± 6.05) 경우 생각을 했던(37.46 ± 5.48) 경우 보다 진로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시불안에 따른 진로불안감은 높다(40.58 ± 7.28), 보통이다(40.56 ± 6.31), 낮다(38.93 ± 5.39), 매우 높다(38.45 ± 5.95), 매우 낮다(38.05 ± 5.60), 생각해 본 적 없다(35.44 ± 5.2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낮다는 매우 높다는 것과 높다는 것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 활동경험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3. 학과 만족도와 진로 성숙도와 진로불안의 상관관계

학과 만족도와 진로불안과의 상관관계는 $r = -.558$ 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와 진로 성숙도는 $r = -.478$ 로 진로불안감과 같이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난다. 진로 성숙도와 진로 불안감

표 8. 학과만족도와 진로불안과의 상관관계

(N=1329)

	(M ± SD)	상관계수			p
		학과만족	진로성숙도	진로불안	
학과만족도	51.51 ± 10.64	—	-.478*	-.558*	.000**
진로성숙도	129.28 ± 12.62	-.478*	—	.465*	
진로불안	38.19 ± 5.78	-.558*	.465*	—	

** $p < .01$

은 $r=.456$ 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불안감도 증가되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학과만족도와 진로 성숙도, 진로불안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표 8).

IV.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에 대해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및 진학 확신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며, 더불어 작업치료(학)과의 경쟁력을 높여 작업치료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조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차영란(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학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및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른 학과만족도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학생(17~22세)이 연령대가 높은 학생(26~28세)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며, 상대적으로 학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학과만족도와는 달리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런 결과는 설문지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저학년에 낮은 나이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학생이 복학생과 편입생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군복무, 어학연수,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과 다른 학교에서 편입한 학생의 경우 학과에 적응하기가 재학생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복학생 및 편입생에 대한 학과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학점관리 및 진로 지도 그리고 취업 등 상담을 통하여 복학생과 편입생이 학과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노재준, 권영탁과 정대진, 2004).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4년제 대학의 교육환경, 교육시설 및 복지 및 편의시설이 3년제 대학보다 만족도가 높지만 4년제 대학생들의 대학지원 동기가 학구적인 분위기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강의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원미와 이재신, 2001).진로확신에 속하는 진로성숙도와 진로불안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수성이 풍부하고 민감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심적부담의 증가로 인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불안이 크다는 연구(이진희, 2009)와는 상반대는 결과로, 작업치료(학)과의 특성상 취업률은 높지만, 졸업 후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이택영과 박소연, 2004).

또한 4년제 대학이 3년제 대학보다 진로성숙도와 진로불안감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적성과 능력에 적합하지 않으며, 취업전망 등에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정원미와 이재신, 2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년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국시불안에 따른 진로불안감은 국시불안이 높은 학생이 국시불안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불안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의 기관에 취직할 수 있지만,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취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현실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입학시 진학확신과 현재 진학확신이 매우 높은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진로불안감은 더 낮았다. 이는 대학입학 전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진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에 입학한 후에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국 19개 학교의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및 운영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학과 만족도와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작업치료(학)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 및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및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과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이 낮은 학생이 연령이 높은 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으며, 재학생이 복학생과 편입생보다 더 높았다. 진로확신에 속하는 진로불안감과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학생이 연령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진로불안감은 낮았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이 3년제 대학보다 진로불안감과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으며, 국시불안감이 클수록 진로불안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작업치료(학)과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관심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치료(학)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민정.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나동진, 송재홍. (1985). 전공-적성 불일치 학생: 현황과 성격적 특성.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16(2), 424-431.
- 노연경. (2011). 대학생의 진로 불안감 변화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직업교육연구학회지, 30(1), 133-149.
- 노재준, 권영탁, 정대진. (2004). 오산대학 학생의 휴, 복 학생에 관한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소, 9, 17-45.
- 박종원. (2002).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서울.
- 송윤신, 권순복, 안금선, 김영남, 김수화, 차민주. (2003).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 연구. 경북논총, 7, 297-316.
- 양경희. (1999).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취업 희망과 효과적인 교과학습을 위한 조사 연구. 경북논총, 3, 543-562.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미자. (2002).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인력양성 실태 및 문제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181-186.
- 이진희. (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이택영, 박소연. (2004). 미래지향적 작업치료사 양성을 위한 제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127-139.
- 차영란. (2010). 대학생활만족도가 졸업 후 모교기부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529-554.
- 이향숙, 노종수, 차정진, 김소란, 김슬기, 박상글 등. (2010).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107-117.
-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 이영식. (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 정원미, 이재신. (2001). 전국 작업치료과 대학생들의 학과선택기준과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9(1), 55-68.
- 정희영, 박옥련. (2009). 군집분석을 통한 가치관집단별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분석 -미용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5(2), 630-638.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 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Abstract

A Research Study About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II: Concentrate on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Confidence Level

Lee, Joo-Hyun^{*}, M.S., O.T., Kim, Han-Sol^{**}, M.S., O.T., Park, Hae-Yean^{**}, Ph.D., O.T.,
Cho, Duk-Youn^{**}, M.S., O.T., Kim, Jin-Su^{***}, B.H.Sc., O.T.
Park, Soo-Hyun^{****}, Ph. 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Dep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ie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anxiety and career maturity levels of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Methods : The methods used are the same as those in the study 'A Research Study About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I : General State and Major Selection'.

Results :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among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17 to 22 age group than the 26 to 28 age group, and 3-year college students than 4-year students. Students who had any type of leave of absence and transfer students showed lower major satisfaction level than the other students. Career confidence level, including career anxiety and career maturity levels, was higher among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Higher aged students showed higher career maturity level and lower career anxiety level. Four-year college students showed higher career anxiety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A higher license examination anxiety correlated with a higher career anxiety level.

Conclusion : Through these results, departments of occupational therapy should offer individual education plans and attention, bearing in mi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udent. In addition, 3- and 4-year students should make cooperative relationship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department.

Key words : Career anxiety level, Career maturity level,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atisfaction level